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30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해 창원·진주 등 3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 18일 광주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선수단 결단식.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30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해 창원·진주 등 3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24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전남도 휠체어테니스 선수단. <전남장애인체육회>

# 광주·전남 선수단 “패럴림픽 열기 장애인체전서 한번 더”

김해서 오늘 개막...광주 22개 종목 284명·전남 31개 종목 435명 참가  
탁구 김영건·보치아 강선희·사격 이윤리·사이클 박솔기 등 메달 사냥

장애인 선수들의 투지를 보여준 2024 패럴림픽의 열기가 김해에서 다시 이어진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 시작해 30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해 창원·진주 등 3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골볼·골프·농구·당구·댄스스포츠·휠체어러비·론볼·배구·배드민턴·보치아·볼링·사격·사이클·수영·승마·양궁·역도·요트·유도·육상·조정·

축구·카누·탁구·태권도·테니스·트라이애슬론·펜싱 등 31개 종목에 9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회는 '활기찬 바람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개최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광주·전남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뽐낸다. 광주에서는 사격·탁구·양궁·육상·조정 등 22개

종목에 284명의 선수가 나선다. '종합 순위 한 자리'를 목표로 한 광주에서는 파리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탁구 김영건(광주시청)과 보치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보치아 강선희(한전KPS)가 감해를 찾는다. 패럴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지난 2023년 43회 대회에서 5관왕을 달성했던 사격 박동안과 여자 컴파운드 32강전에서 좌절했던 양궁 정진영(이상 광주시청)도 이번 대회를 통해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단체종목에서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까지 7연패를 달성했던 지적축구팀(동호인부)이 다시 정상 탈환을 꿈꾼다.

지난 18일 광주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 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 겸 시 장애인체육회장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시길 거라 믿는다"며 "광주답게 큰 긍지와 자신감으로 뛰어달라.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전남에서는 31개 전 종목에 435명의 선수가 출격한다. 목포 일원에서 열린 지난해 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전남은 원정 최고 성적인 '종합 8위·9만5000득점'을 목표로 레이스를 시작한다. 전남은 3연패에 도전하는 단체 종목인 남자 골볼

·여자 좌식배구(이상 전남도청)를 비롯해 패럴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긴 사격 이윤리(완도군청), 종목 우승을 노리는 사이클 박솔기(한전KDN)·론볼 송명준·이영숙·김희배·황동기·소원기(이상 한전KPS) 등을 앞세워 메달 수확을 도모한다.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도전 정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승패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제45회 대회는 오는 2025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달라진 막내’ 페퍼스, 천적 정관장 상대 연습 노린다



오늘 홈 경기...박정아·자비치 공격력 강점

‘막내의반란’을 일으킨 페퍼스측은 홈 시페퍼스가 안방 개막전에서 연습을 노린다. 페퍼스는 25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로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를 상대한다. 페퍼스는 지난 2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세트스코어 3-0(25-17 25-22 25-14) 셋아웃 승리로 창단 3년 만의 첫 개막전 승리를 따냈다. 이날 경기에서 63.64%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보인 박정아는 외국인 드래프트 자비치와 양 팀 최다인 14득점을 따냈다.

주장 박정아는 V리그 여자부 역대 통산 공격득점 5000점을 돌파(현 5004점)했다. 지난 1월 현대건설 양효진이 여자부 최초로 공격득점 5500점을 넘어서며 선두를 달렸고 박정아가 2호로 뒤따르며 개인 기록 경신과 함께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장위 역시 이한비와 함께 12득점(공격성공률 57.14%)씩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그는 조별리그 기준 블로킹 1위(세트당 1.083개), 이동 공격 1위(성공률 58.33%)와 속공 6위(성공률 50%)를 기록하며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의 활약을 선보였다. 창단 첫 개막전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은 했지만 홈 개막전 상대는 페퍼스의 천적, 정관장

이다. 페퍼스는 정관장에게 지난 2021-2022, 2022-2023시즌 전패를 기록했고, 바로 이전 시즌에는 1승 5패를 기록했다. 앞서 전적에서는 페퍼스의 일방적인 열세지만 올 시즌 분위기가 다르다. 미들블로커 출신의 장소연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들면서 팀 전력·전술에 변화가 생겼다. ‘높이’에 강점을 두면서도 기본기를 강조한 장 감독의 지휘 하에 범실 관리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페퍼스는 앞선 개막전에서 9개의 범실에 그치면서 20개의 한국도로공사를 압도했다. 새 사령탑을 앞세워 ‘최하위 탈출’을 노리는 페퍼스가 홈팬들의 응원 속에 2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연지현·김지선·조연서 지명

오세일 감독 “부족한 부분 보강...팀에 활력 불어넣겠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세 명의 신인 선수 연지현, 김지선, 조연서를 지명했다. 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이번 지명한 신인 선수들을 통해 “팀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신인 드래프트’ 여자부에는 8개 구단의 관계자들과, 지명 대상 선수 29명이 참가했다. 1라운드 3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광주도시공사는 한국제대 피봇 연지현을 지명했다. 연지현은 가운데 수비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모으며 팀의 주축이었던 피봇 원선필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 오 감독은 “이번에 제일 초점을 둔 건 원선필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원선필 선수가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이번에 팀을 나가게 됐다. 그 자리를 보강하려고 연지현 선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연지현은 한국 주니어 대표팀에서 활약했고,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된 바 있다. 도시공사는 2라운드에서 일신여고의 센터백 김지선을 지명했다. 김지선은 제103회, 제104회 전국체전 우승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23-2024 U18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3라운드에서는 인천비즈니스고 원손잡이 라이

트백 조연서가 지명을 받았다. 같은 포지션 대비 좋은 신체조건(167cm, 62kg)을 지닌 조연서는 올해 태백산기, 협회장배, 중별 선수권대회,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연서는 라이트윙 한승미·방민서가 내년부터 도시공사를 떠나게 되면서 부족해진 ‘원손’ 자리를 채우게 됐다. 오 감독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팀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었다”며 “젊은 선수들이 경험은 부족하지만 혈기로 뭉치면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을 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신인 선수들이 팀의 젊은 에너지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경험을 쌓으며 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된 연지현·김지선·조연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에서 한국핸드볼연맹이 주관하는 드래프트 선발 신인 대상 교육에 참석한 뒤, 11월 초 팀에 합류해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양궁 남수현·복싱 임애지,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

양궁 남수현(순천시청)과 복싱 임애지(화순군청)가 ‘2024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8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남수현과 임애지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전남인으로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도민과 출향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관광문화체육 등 4개 분야에서 남수현과 임애지를 비롯해 정진완 대

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10연패 신화를 작성한 남수현은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성남초-순천풍덕중-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순천시청에 입단했다.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는 전남 대표로 나서 순천시청의 여자양궁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하며 전남 양궁의 위상을 높였다. 임애지는 파리 올림픽 복싱에서 동메달을 획득

하며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임애지는 화순중-전남기술과학고-한국체대를 거쳐 현재 화순군청에서 뛰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수현 임애지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광주예술의전당 문화산책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문의 062)613-8233